

# 활 발히 움 직이 는 조 선 어 린 이 후 원 협 회

공화국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최근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새로 발족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이곳 협회의 한회숙서기장은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회의 발족은 어린이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한 중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어린이들의 근본권리를 옹호하고 건강, 영양, 지능발육, 생활관련 봉사물을 개선하여 앞날의 강성국가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방조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특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것이

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 생활하고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은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어린이보호의 의무는 부모에게만 국한된다고 볼수 없다. 즉 사회자체가 어린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비롯한 근본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국가의 보살핌속에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중시하고 국가적관심을 돌리는 공화국의 현실을 널리 선전하며 협회의 존재와 목적, 활동에 대한 소개도 적극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기관

들과 비정부단체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고있다.

특히 자기의 사명에 맞게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는 사업을 적극 후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전개하고있다.

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선전물들을 발행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생활개선에 대한 통보와 정보봉사, 각 도의 애

육원과 육아원에 대한 단계별후원계획,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강습과 강연, 시급히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로해를 심화시키나가고있다.

얼마전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의 육아원들에 나간 협회일군들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와 위생상태를 료해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어린이들속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



평양-함산관광도로를 벗어나 평안남도 평원군 읍옥에서 얼마간 가느라면 소나무숲속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여러동의 건물을 볼수 있다. 여기가 바로 석암휴양소이다.

우리가 석암휴양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정오가 가까워울무렵이었다. 우리와 만난 이곳 휴양소의 안철호소장은 휴양소가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휴양소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휴양소의 운동장에서는 휴양생들의 배구경기가 한창이었고있다. 재치있게 공을 다루는 선수들의 모습도 볼만 하였지만 성수가 나서 운동장에 열을 올리는 휴양생들로 하여 배구장은 떠들썩하였다.

휴에 뜬 그 정경을 바라보며 안철호소장은 평양에서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 온 로동자들인데 모두가 혁

# 즐거움과 랑만이 넘쳐난다

◇ 석 암 휴 양 소 를 찾 아 서 ◇

신자들과 하면서 휴양소의 여러 호실들로 우리를 이끌었다.

알뜰하게 꾸려진 호실에 가보니 놓여있는 침대며 소파, 랑동기와 선풍기, TV와 목욕기... 어느 호실이나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정결하고 아늑하게 꾸려져있었다. 휴양생들이 제 집처럼 정이 폭 들어 한번 오면 떠나고싶지 않아 할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안철호소장은 웃으며 정말 그렇다고, 휴양생들이 낯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간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리발살과 한중칸이 달린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을 돌아보고나서 우리가 들린 곳은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유희오락실이었다. 이곳에서

휴양생들이 탁구도 치고 장기와 윗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장훈이야!》하고 소리치며 《명훈이야!》하고 맞받아치면서 열을 올리는 이들의 장기경기는 쉽게 승부가 나질 않지 않았다. 생상에서도 양보를 모르더니 경기에서도 양보를 몰랐다. 그 려면가하면 윗놀이를 하는 녀성휴양생들의 승복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모야!》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박수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휴양생들의 기쁨은 식사실에서도 넘쳐났다. 팔팔과 시원한 오이랭국, 닭알과 물고기, 자체로 꾸민 온실에서 생산한 부루와 죽것, 콩고추 등 식탁에 오른 음식들을 들며

휴양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로리사들의 정성이 대단한데.》, 《무더운 날씨에 우리 심정을 알아주누만.》, 《오이랭국 한그릇 더 청합시다.》...

서평양기관차에서 온 로동자 리종남은 돈 한푼 내지 않고 훌륭하게 꾸려진 휴양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으니 그만 갈다고,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공화국이 제일이라고 말하였다. 고무산세멘트공장과 합종다이하공장에서 왔다는 휴양생들의 심정도 한결같았다. 이들의 즐거움은 저녁마다 진행되는 오락회시간이면 더욱 이채를 띠었다고 한다.

정녕 무심히 볼수 없는 휴양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이었

나는 이번엔 제32차 조선대학교학생 조국방문단으로 학생들과 함께 조국에 왔다.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해마다 조국에 오는 것은 자기의 뿌리인 조국을 더 잘 알기 위해서다.

조국과 떨어진 해외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나가는것은 민족교육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선대들이 퍼로써 찾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고수하고 총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민족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우리 동포교육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학생들을 유능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수요양사업과 학생인입사업, 준정규교육망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가 있는 동포들의 집마다 찾아다니며 민족교

육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있고 그들에게 조선노래, 조선장단을 배워주고있다.

조선학교에서는 《사회》라는 과목을 통하여 우리 말도 배워주고 우리 나라의 지리와 역사도 배워준다.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일본에서 살고있는가, 조국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알리춤으로 학생들이 조선사람이라는 긍지를 안고 살도록 하고있다.

수업시간뿐아니라 민족무용소조, 민족악기소조를 비롯하여 과외시간을 통하여서도 학생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있다.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한 《친한 동무》라는 잡지도 발행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조선학교들에서 진행되는 민족교육의 모범이 소개되기도 한다.

해마다 우리말구연대회, 예술공연도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동포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 동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익히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족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사랑과 지성 또한 대단하다. 총련과 녀성동맹, 청상회 등 여러 동포단체들이 학

생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다. 동포들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을 교육지원금으로 바치고있다.

그 성의에 의해 최근년간에만도 여러 지역에서 현대적인 새 교사들이 일떠섰다.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의 토대는 날로 튼튼해지고있으며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나는 민족교육의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민족교육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애국활동의 출발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것이다.

총련조선대학교 교육학부 교원 조우호

변화한 도시나 심산벽촌의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재중동포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모여 즐겨 읽곤 하는 잡지를 소개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백두-한나》이다.

1990년대초부터 시작하여 올해 7월까지 루게 235호를 기록하는 잡지 《백두-한나》가 동포사회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는것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싶어하는 다채로운 소식과 내용들이 많이 실리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총련합회》, 《조국소식》으로부터 《국제단신》, 《상식》, 《유모야》, 《소설선재》 등 고정판들을 통하여 여러가지 흥미있는 소식들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동포생활의 이모저모를 펴



초 폭발시간은 그들의 생명을 무섭게 위협하였지만 그들은 맘으로 몸을 작시며 그것도 만약을 생각하여 몸으론 폭탄을 막아서며 한치, 한치 땅속을 파내려갔다. 바로 그때 요란한 폭음이 울리었다.

하였다.

한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나가 애육원과 육아원의 어린이들에게 사계절 떨구지 않고 보장할 다시마가루, 콩가루, 참쌀가루, 물고기뼈가루와 같은 가루식용생산정형을 알아보고 필요한 방조를 주기도 하였다.

육류아동병원에 위치하고있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성원총회, 집행리사회, 재정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대상계획부, 선전부, 대외사업부, 현지사무소들과 아동진료소, 아동진료소, 정보보급소, 육아원, 탁아소, 영양제생산공정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있다.

한회숙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은 말한다.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야 나라와 민족의 태일이 담보된다. 우리는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어린이후원활동을 더 잘해나갈것다.》

본사기자 홍범식

다. 경치좋은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휴양소에서 울리는 휴양생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행복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 퍼졌다.

본사기자 최대성

## 어린이보육교양제도

공화국에는 가는 곳마다 근로하는 녀성들을 위한 일탁아소가 있다. 그리고 교사, 교원, 연구사, 의사 등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일이 바쁜 녀성들을 위한 주탁아소, 주유치원이 곳곳에 있다. 어머니를 잃었거나 어머니가 장기질병으로 앓는 어린이들은 육아원에서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어린이들이 70명이상 되는 탁아소에는 아동병동과 의사가 있으며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질병상태의 아이들에 대한

## 육류아동병원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 \*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병원 \* \*

공화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어린이들의 종합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육류아동병원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주제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말 회한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그르친 갖춘 이런 병원은 처음 본다.

아동병원이 이렇게 규모가 클줄 생각도 못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돈있는 부자집아이들조차 이처럼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힘들다.

이곳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 조선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들이다.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 단장 부흐만 루돌프는 병원의 하나하나의 설비모두가 최상급수준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설비들을 갖춘 병원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원들이 있는것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

에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정말 놀라기만 하다. 이 병원은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재중조선인예술단후원단단원 김옥순은 참관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육류아동병원은 우리 어머니들이 꿈에서나 그려보던 희망과 행복의 전부이다. 조국인민들뿐아니라 우리 동포를 돌봐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감사의 끈결을 삼가 올리 고싶다. 그이께서 계시어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겨안

았다.

정말 조국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부럽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치료받는 아이들을 위해 교수대책까지 세워진 병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병원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조국의 새 세대들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다.

본사기자



## 어린이들이 받는 혜택

건강관리는 물론 치료식사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8, 9월 탁아소, 유치원지원월간이 제정되어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 전국가적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 어린이건강관리체계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인민병원과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건강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정연한 의료봉사체제와 함께 어린이건강검진체계가 세워져

있다.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수십차례의 접종을 통한 예방의 료봉사를 무료로 받는다.

또한 병방지대, 산간지대 그 어디에서나 의료일군들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있으며 보건성에서는 그 검진결과에 따라 각종 의약품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생산공급한다.

## 세쌍둥이건강관리체계

삼태임신으로 의문시되는 녀성들은 해당 치료예방기관 의료일군들과의 면담에 평

양산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삼태임신으로 진단된 녀성들은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건강관리를 보장받는다.

세 쌍둥이들은 육아원에서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원의 직접적인 보호속에 자라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전문과사의를 고정담당시키는 건강보호체계를 세워놓았다. 공화국에서는 세쌍둥이들이 4살이 될 때까지 국가적인 부담으로 육아원에서 키워주며 소학교에 갈 때까지 모든 생활조건을 보장해준다.

본사기자

## 동 포 들 이 = 즐 겨 = 기 다 리 는 잡 지 《 백 두 - 한 나 》

처보이는 잡지를 재중동포라면 남너로스 누구나 좋아하며 기다리곤 한다.

올해 2월에 발간된 잡지 《백두-한나》만 놓고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며 어린이들에게 친여버의 따뜻한 사랑을 안겨주시는데 대한 보도기사와 위대한 장군님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라는 내용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는 제목

의 기사를 실어 동포들속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력사적인 새해신년사에 접하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산하 각 지부 일군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된 소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 지구협회들, 지부들, 각계층 재중조선인들이 열렬히 지지찬동하고있는데 대한 소식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동포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특히 조국을 방문하고 쓴 방문기와 인상담, 조국소식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백두-한나》잡지를 읽으

면서 재중동포들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크나큰 민족적궁지에 넘쳐 총련합회사업에 발벗고나서고있다.

《백두-한나》잡지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산하 지부들에서 보내온 편지들도 실리곤 한다.

할빈지구협회의 일군들이 생활상불편을 겪고있는 연수현지부의 한 공민을 친절 육의 심정으로 도와주고 꾸준히 교양한 여성거류층을 방도록 한 사실이며 심양시지부의 정옥원공민이 심한 위병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을 때 황영두회장을 비롯한 공민들이 병문안하여 따뜻한 위로해준 이야기, 해림

시지부에서 잡지 《백두-한나》를 읽으며 학습도 하고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모습과 국제사회에서 높아가는 조국의 위상에 대한 해설모임을 진행한 내용을 담은 편지들은 동포사회와의 단합을 실현하고 그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있다.

잡지 《백두-한나》가 동포들이 즐겨 기다리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는데는 한길수, 김영희, 김길신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일군들의 숨은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그들은 총련합회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발전하는 현실과 동포들의 특성에 맞게 잡지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개선하고 질적수준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

한 재미동포가 10일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 터넷트홈페이지에 실었다.

글은 북이 올해 수확한 첫물복숭아를 평양시에 상임봉사망들과 육아원, 애육원과 양로원에 보냈다고 지적 하였다.

조국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에 의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치가 끝없이 펼쳐져 사람

들은 그분들을 흠모하고 따르며 행복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찬란하였다.

글은 이렇게 파일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로동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 일심단결이 이루어진 나라, 이런 아름다운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애국활동의 열의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해마다 조국에 오는 것은 자기의 뿌리인 조국을 더 잘 알기 위해서다. 조국과 떨어진 해외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나가는것은 민족교육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선대들이 퍼로써 찾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고수하고 총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민족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우리 동포교육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학생들을 유능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수요양사업과 학생인입사업, 준정규교육망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가 있는 동포들의 집마다 찾아다니며 민족교

육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있고 그들에게 조선노래, 조선장단을 배워주고있다. 조선학교에서는 《사회》라는 과목을 통하여 우리 말도 배워주고 우리 나라의 지리와 역사도 배워준다.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일본에서 살고있는가, 조국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알리춤으로 학생들이 조선사람이라는 긍지를 안고 살도록 하고있다. 수업시간뿐아니라 민족무용소조, 민족악기소조를 비롯하여 과외시간을 통하여서도 학생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있다.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한 《친한 동무》라는 잡지도 발행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조선학교들에서 진행되는 민족교육의 모범이 소개되기도 한다. 해마다 우리말구연대회, 예술공연도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동포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 동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익히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족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사랑과 지성 또한 대단하다. 총련과 녀성동맹, 청상회 등 여러 동포단체들이 학

한 결과 폭탄은 일정한 충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폭발하는 250kg짜리 화학식탄폭탄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폭탄의 피해반경은 1500m로서 그 주위의 생명체와 공공건물이 폭탄의 피해를 입은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 인 민 의 행 복 을 지 케

해제할 결심을 하였다.

얼마후 보안원들은 폭탄이 박혀있는 구멍이로 힘있게 결을 내렸다. 생명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있는 한 단 한조각의 파편도 새어나가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은 인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 주지않고 폭탄이 박혀있는 구멍이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초, 한

이렇게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절세위인들의 영생탑을 보위하고 인민들의 생명체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

나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레사롭게만 여겨오던 하루하루, 자기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절히 깨달았다.

귀중한 인민들의 생명체산을 지키는 길에서 값은은 삶을 빛내인 그들의 영웅적위훈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위양육성된 인민보안원들의 인생관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공화국의 인민보안원들의 소행과 같은 영웅적인 미지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사기자